

트럼프 시대, 한국이 제시할 MASGA 모델

발언대



김경찬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

전세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 기반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작년 10월 한국의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한국의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MAGA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비전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이것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후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골드워터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로널드 레이건이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 슬로건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구호를 부활시켜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공화당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이자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대선 캠페인을 맡았던 24세의 수지 와일스가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은 것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MAGA는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비전이고,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한국 정부에서 대표적 협력 대상인 조선산업을 반영하여 제안한 것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미국 투자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MASGA라는 한미 간 협력모델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MASGA는 조선 (Shipbuilding)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강 (Steel), 이차전지 (Secondary Battery), 반도체 (Semiconductor), 소형 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방산 (Security), 공급망 (Supply Chain) 등 미국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망라된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MASGA는 미국의 MAGA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MASGA (Make American Society Great Again)라는 글로벌 패권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MASGA는 '한국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일본, 대만, EU 등 미국의 여러 우방국들은 이미 MASG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MAGA 정책 비전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만 의존하는 협력체제는 미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경쟁적 협력체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있는 것이다.

MAGA 슬로건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 지주회사인 'Trump Organization'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MAGA의 성공을 위해서는 MASGA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MASGA라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안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MASGA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MASGA 상표권 등록까지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란이 문을 더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The Korea Times 150-15 41st Ave., Suite 3A, Flushing, NY 11354
▲E메일: ktnyedit@gmail.com